

예수 성탄 대축일

제1독서 : 이사 52, 7-10  
제2독서 : 디도 3, 4-7  
복음 : 루가 2, 1-14

# 숲정미

“오늘밤 너희의  
구세주께서  
다윗의 고을에  
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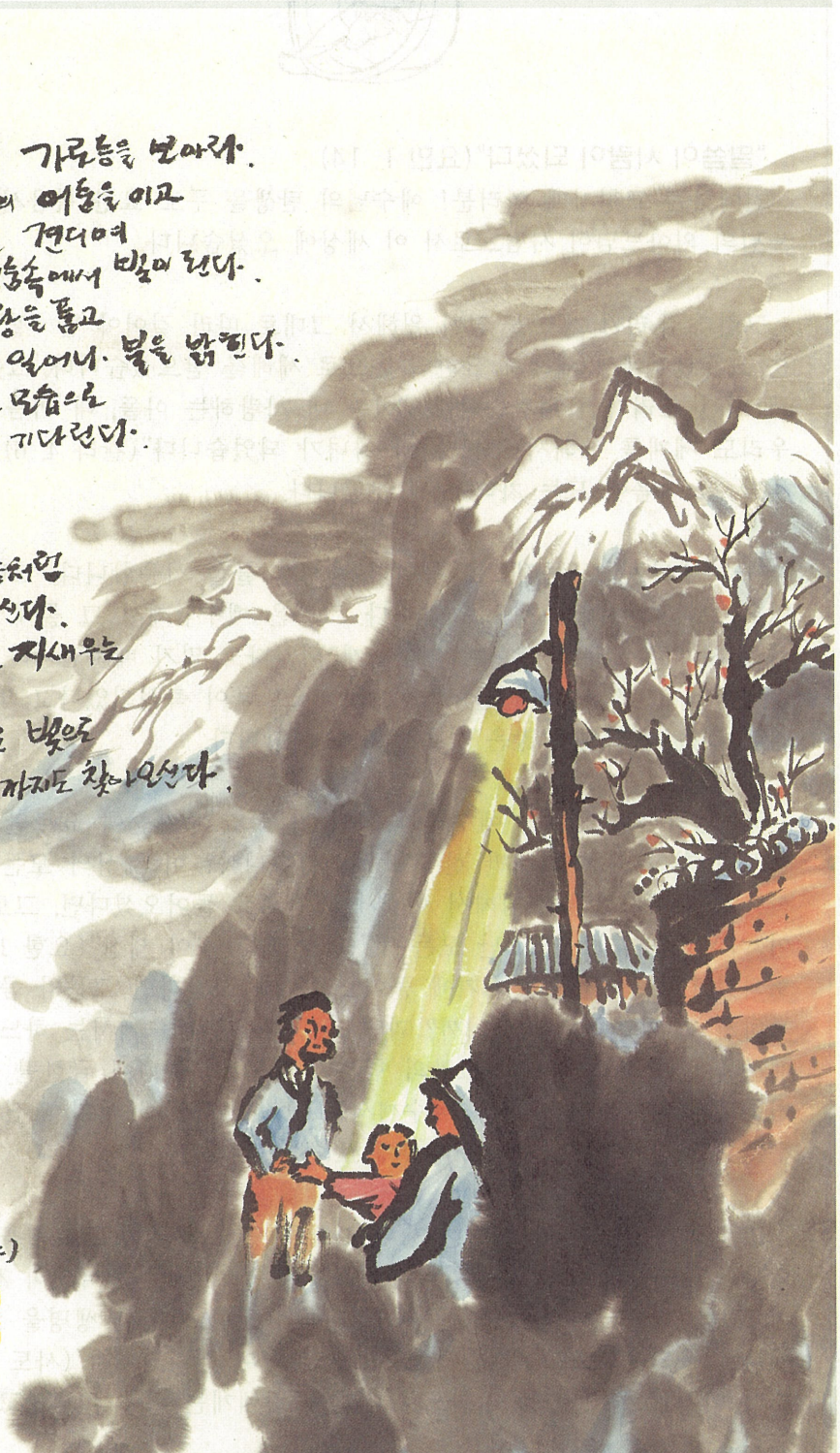
(루가 2, 11)

## 기름등

**저** 겨울의 문 밖 기름등을 보아라.  
 배후에 막힌 무한의 어둠을 이고  
 칼바람과 눈보라를 견디며  
 스스로 주인이 되어 어둠속에서 빛이 된다.  
 가슴에 내스한 사랑을 품고  
 군주가 잠든 세상 홀로 일어나. 빛을 밝힌다.  
 늘 그 자리에서 같은 모습으로  
 조용히 서서 태양을 기다린다.

나같은아.  
 저 추운 문 밖 기름등처럼  
 주님이 우리를 지켜 보신다.  
 새하얀 밤을 쫓는 눈으로 지새우는  
 한그루 나무이 되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빛으로  
 우리에게 낮을 치마일자리도 찾아내신다.

글 김혜선(아내)  
 그림 현철(아들)



1998년 성탄메시지



# 성탄 대축일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요한 1,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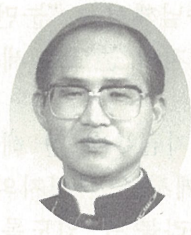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요한 복음사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하느님의 외아드님이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대로 따라 걸어야 할 “길”(요한 14, 6) 이신 예수님께서서 요르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의 손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마태 3, 17). 우리도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갈라 4, 6). 우리도 하느님의 사랑하는 아들딸, 그 마음에 드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세례 때에는 그 목적으로 특별히 축성한 물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요르단 강물만은 축성하지 않고 그대로 세례용 성수로 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서 그 물에 당신의 몸을 담그셨으므로 그 사실 자체로 요르단 강물이 거룩하게 되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외아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서 그 강물 속에 들어가심으로써 그 물이 축성되었다고 믿고, 그 믿음이 이런 관례로 정착된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느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의 몸이 가 닿았기 때문에 요르단 강물이 거룩하게 되었다면, 그 축성의 힘이 왜 거기에만 한정될 것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물이 축성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느님께서서 이 “세상”안으로 들어오셨다면, 그로써 이 세상 자체가 축성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생겨난 모든 것”(요한 1, 3), “이 세상”(요한 1, 10) 전체가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 자신이 거기에 들어오셨는데, 그렇다면 그분의 몸이 와 닿은 이 세상이 온통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의 힘은 조그만 강 하나에 국한될 수 없습니다. 물질 세계 전체를 거룩하게 하고도 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여기 오셨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그 때문에 당신의 외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이 위대한 힘이 사람들 안에서 실제로 효력을 내기 위해서는 한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 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요한 3, 17). 실제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갑니다”(사도 17, 28).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참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들이 축성되어 거



전주 교구장 이병호 주교

# 맛이 하여

룩해 집니다. 그런 뜻에서 바오로 사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오직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1고린 10, 31).

우리의 기쁨과 슬픔, 희망과 좌절, 성장과 노쇠, 솟구치는 힘과 피로, 요컨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느님께서 들어오신 거대한 강물인 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느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필립 2, 6-7).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 사람들의 삶은 “죄만 빼고” 모두 거룩해졌습니다. 하느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그것은 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뚜막의 소금도 넣어야 짜다”는 속담대로, 하느님 쪽에서 이렇게까지 가까이 와 주셨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뚜막에 소금이 가마니 짚 쌓여 있다 해도, 정작 우리가 그것을 한 수저라도 떠서 음식에 넣지 않으면, 바로 옆에 쌓여 있는 소금이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 깊이에 그분을 맞아 들여야만 그분께서 이 세상에까지 내려오신 참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분을 맞아들이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요한 1, 12). 그렇게 해서 하느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은 그 삶 전체가 하느님의 활동이 되고, 그들이 사는 세상이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곳, 그분의 천막이 됩니다. 더 나아가 사람이 하느님의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느님의 성전이며 하느님의 성령께서 자기안에 살아 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1고린 3, 16).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희년을 바로 앞둔 시점에 마지막 성탄 대축일을 경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경제적 찬바람으로 크게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특별히 큰 어려움 속에 그대로 놓여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살길이 막연한 실직자, 무의탁 노인, 소년소녀 가장, 부모 잃은 어린이, 부모나 주변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여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청소년, 미래가 불확실한 채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아가는 외국인 노동자 등은 그 몇 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누구입니까?

“아버지”이신 하느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모두 “자녀들”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모두 “형제들”입니다. 우리의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느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세상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것”(요한 1, 10)과 비슷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

[4] 숲정이

문에 예수님께서서는 “눈먼 사람들을 보게”(루가 4, 18)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한 해 동안을 하느님 아버지의 해로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계서는 아버지의 해의 근본 취지가 “신자들이 하여금 아버지이신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 만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두움 속에 빛”(요한 1, 5) 으로 오시는 분, 얼어붙은 세상에 “불을 지르러”(루가 12, 49) 오시는 분께서, 먼저 우리 각자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 주시고 뜨겁게 달구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제자들인 우리가 “나부터 새롭게” 되고, 그 새로움을 가정에서부터 출발하여 점점 더 넓은 세상에까지 확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주님의 빛으로 좀더 밝게 하고,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참다운 사랑과 평화가 조금이라도 더 깃든 사회로 바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 각자와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998년 성탄절



이병호

전주교구장 이병호 주교

<p><b>겨울방학 성이시돌 제주피정</b>                  때 : 99년 2월 20일~23일(3박 4일)                  2월 25일~28일(3박 4일)                  장소 : 제주이시돌회관                  성이시돌 목장내                  문의 : (02) 773-1455                  99년 매월 접수중</p>	<p><b>동보한의원 동부약국</b>                  최첨단 의료시설 및 주차장 완비                  원장 김 경 환(파비아노)                  약사 범 순 복(안 나)                  익산시 영등동 성당 옆                  ☎ 한의원 (0653) 852-4666                  약 국 (0653) 841-7217</p>	<p>기장, 신고, 양도, 증여, 상속,                  부가, 이의 신청                  - 교우 개업시 세무신고 세무 무료상담 -  <b>세무사 이환영 사무소</b>                  세무사 이 환 영(아오스딩)                  사무장 이 종 명(시 문)                  ☎ (0652) 254-3346                  253-3346-8</p>	<p><b>김희민 정형외과</b>                  가톨릭 공제조합 지정병원                  김 회 민(루가)                  남전주 전화국 앞                  (구 영광주유소 자리)                  ☎ 226-7600-1</p>
<p>서도프라자 확장이전  <b>코아삼의피아노</b>                  피아노, 교회용 전자올젠(면세)                  디지털피아노, 키보드                  일반악기 도소매                  효자동 서도프라자 2층                  양 노 섭 (하상 바로로)                  ☎ 225-5252, Fax 223-5332</p>	<p><b>죽림리조트 유희온천</b>                  당노, 피부병, 신경통 위장에 특효                  사우나, 대중탕, 가족탕, 여관                  이 봉 근(바로로)                  국 장 호(요 섭)                  ☎ (0652) 232-8832                  (0652) 232-8757</p>	<p><b>김제원광한의원</b>                  한의학박사 이순호(루치아노)                  정연숙(루 치 아)                  김제시 요촌동 김제초등학교 앞                  ☎ (0658) 547-3260                  546-3200</p>	<p><b>김제치과의원</b>                  송 기 삼(골롬바노)                  김 성 자(골 롬 바)                  김제시 요촌동 금만사거리                  ☎ (0658)544-2875-6                  FAX (0658)544-2876</p>
<p><b>원 아 모 집</b>                  대상 : 1세부터~취학전자녀                  특징 : ① 몬테소리교육 ② 종일                  반 운영 ③ 저소득층 자녀                  혜택 ④ 차량운행                  접수 : 팔복 성모 어린이집                  전화 : (0652) 212-1618</p>	<p><b>동 아 산 업</b>                  스텐샷수, 샷타, 방범창, 방충망                  철구조물, 하수구, 양변기                  수도공사, 배관 보수, 누수탐지                  박 상 복(바로로)                  ☎ (0652) 253-8111                  241-7474</p>	<p><b>서울가정의원</b>                  지질 전문 치료                  입원하지 않고 수술 치료                  무통, 초음파, 레이저                  전문의 : 이 상 재(베네딕도)                  전주 덕진광장 앞                  ☎ (0652) 275-0550~1</p>	<p><b>LG 에어컨 파격세일</b>                  15~26% 할인+6회 무이자                  식당용 냉장고 17개월 무이자                  냉난방기기 상담 환영                  백제로 빙상경기장 맞은편                  원 승 연(도밍고)                  ☎ (0652) 241-2000</p>